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비극’의 요소 파악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내 옷이 (갈기갈기/발기발기) 찢어져 있었다. 미라는 편지를 (갈기갈기/발기발기) 찢었다.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갈기갈기는 여러 가닥으로 찢어진 모양. 발기발기는 자꾸 찢는 모습.

오늘 오후 (한때 비/ 때때로 비)가 왔다.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왔다. 내리는 비를 표현할 때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그 의미에 맞는 말을 써야 되겠지요.

한때 비-한 차례 내리는 비, 때때로 비-여러 차례 내리는 비

내가 보기에 이 일은 (하루 이틀/한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 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하루 이틀-하루나 이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 이틀-약 이틀 정도 그제 왔으니 한 이틀 머물다가 가는 셈이군.

인명옥(시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고침 617호 '우리말...' 코너의 설명중 '갑절이 곱절보다 많은데...'는 '곱절이 갑절보다 많은데...'로 바로잡습니다.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소포클레스작 '오이디푸스왕'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있지요. 오늘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오이디푸스왕'을 소개해 볼까 해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비극의 전형이라고 찬양을 받은 이 작품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운명 비극, 또는 성격비극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요. 아무튼 작자 소포클레스는, 신은 인간 위에 존재하며, 신의 세계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지요. 고아 오이디푸스를 테베에 왕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나,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힘도 결국 하나의 힘이요, 인간은 그러한 힘의 전도를 스스로의 재량을 통해 접할 때 인간 자신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테베에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아들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지요. 그런데 아폴론의 신탁에 의하면 그 아들은 친부를 살해하고 친모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라이오스는 하인을 시켜 아기의 발목을 묶어 산중에 버리려 했으나, 그는 차마 왕자를 죽게 할 수 없어 소생이 없는 이웃나라 코린토스 사람에게 아기를 주었어오.

이 왕자는 어느 날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취객으로부터 듣고, 델피에 가서 아폴론에게 물어 보죠. 그런데 신탁의 예언은 자기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리라는 것. 왕자는 이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코린토스를 탈출, 테베에 이르러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마차와 승강이 끝에 우연하게도 마차에 탔던 아버지 라이오스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한편 왕자는 테베에의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던 스팅크스라는 괴물을 퇴치한 공로로, 테베에의 왕위를 계승하고 왕비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지요. 그 뒤 오이디푸스가 선왕

'오이디푸스 · 엘렉트라 콤플렉스' 심리학 용어 두 개 꼭 알아둬야

라이오스의 살해자는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생모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가 목을 때어 자살한 뒤였으므로, 그는 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한 자기의 눈을 뽑아 버리죠.

이 소설을 읽고 '비극'의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심리학 용어 두 개도 꼭 알아 둬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였던 프로이트는 고전작품을 즐겨 읽고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오,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할 때 심화를 많이 인용했다고 하지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그 중 하나예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남성의 경우 3-5세의 유아기에 어머니에게 성적인 애착을 느끼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일컫는 프로이트의 용어랍니다. '아버지처럼 자유롭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동일시로 변하며 여기에서 초자가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애를 가지게 되지만 신경증 환자는 이 극복에 실패해 사회적으로 억압된 이 욕망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꿈속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고 했어요.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반작용 내지는 극복이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했죠.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은 항상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함께 '엘렉트라 콤플렉스'란 말도 알아 두면 좋아요.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남자 아이가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어머니를 가깝게 여긴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자주 등장하죠.

흔히 여자 아이가 어머니를 적대시하고 아버지를 가깝게 여기는 심리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동생 올레스테스와 함께 자신의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한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가 보여 준 아버지에 대한 집념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에서 유래한 것이죠.

인명옥(시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책이 너무 너무 읽기 싫어요.

Q: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저는 평소 책을 너무 안 읽어서 탈이에요. 특히 과학도서 같은 건 너무나 읽기 싫어요.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효과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ID: keror1234)

A: 저런, 책 읽기가 힘든가요? 하지만 올바른 독서방법이라고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다만 학생들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아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학생은 특히 과학 도서를 읽기 힘들다고요. 사실 과학에 큰 흥미를 가진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과학 관련 책을 읽는다는 것은 솔직히 힘든 일입니다. 과학이란 과학 자체가 딱딱하고 건조한 과목으로 인지도 있고 만화도 아닌 책이라니, 힘들지요. 처음에는 모험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대고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친구도 그런 경우가 아닌지 잘 생각해보기 바래요. 그리고 밑에 글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 1.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 신문을 스크랩하세요.
3. 부모님과 함께 1주일에 2-3일 정도 서점에 가 보세요. 책은 항상 직접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과학책도 학생에게 재미있는 책을 찾을 수 있을거예요.
4. 독서 클럽을 만드세요. 책을 한권씩 나눠 구입해 돌려 보면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지요.
5. 1권 읽는 평균 기한을 정해야 해요. 초등학생의 경우 보통 일주일에 1권 정도 읽을 것을 권합니다.
6. 책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간단한 내용정리와 느낌점을 글 ·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책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독서는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내일도 힘든 것은 아닙니다. 걱정 말고 책과 친해지기 바랍니다. (한미음성당연구실)

장자 (7) by 정음초집. A series of comic panels discussing Zhuangzi's philosophy, including the parable of the butterfly and the discussion of the Great Way (Da Dao).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본 종단 중지종풍에 뜻있는 중도 및 사암을 모집합니다 (행자모집)

- 종 정: 각암 대종사
부 종 정: 해산 중앙종회의장: 정관
총무원장: 능인
중앙선원장: 해일 사정원장: 운암
중앙연수원장: 범아 포교원장: 향운
교육원장: 정도 무술연수원장: 무성
총무부장: 정타 재무부장: 무심
교육부장: 명등 사회부장: 도안
문화부장: 해명 호법부장: 도천
규정부장: 해능 사서실장: 자은

▶총무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054)464-4725, 464-4735



부처님 탄생하신 나라에서 모셔온 달라이라마 예증 림마 돌체 라마와 티벳님 8명

- 1.티벳님 조상 합동 천도재 부자
2.국제 보살계 (판차실라) 부자
3.마정수기 소원성취 부자

위 내용 범회 행사를 원하시는 사찰에 적극 협조 해 드립니다.

※만다라 또는 어떠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문의: (054) 535-1669 / 011-229-1068 016-9281-1666

▶후원: 한국불교 사암 총 연합회 해원 여행사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영물조각 · 옥불조형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크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